

종회의원 성화 스님 삼보사찰 천리순례체험기

☉ 법보

+ - 🖨️ ↺

교계 입력 2021.10.25 12:41 수정 2021.10.26 12:11 호수 1607 댓글 0

“천리순례, 사부대중에 희망의 빛이 되길”

불교종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며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법보종찰 해인사를 거쳐 불보종찰 통도사에 이르는 423km를 순례한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10월18일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으로 참여했던 중앙종회의원 성화 스님이 10월25일 법보신문에 순례과정에서의 소회를 담은 체험기를 보내왔다. 스님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순례과정에서 한국 불교의 지난 역사를 되새길 수 있었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며 “함께 해 준 대중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편집자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회향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몸은 아직도 지속되어 새벽 3시면 일어나게 한다. 이른 시각 조용히 사색에 들어 순례 18일을 생각해보면 꿈 같고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출가 이래 한번은 어떤 형태의 결사이든 참여해 불교종흥에 이바지하고 싶었는데 상월선원 동안거결사.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제1차 만행결사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삼보사찰천리순례에 참여하였다.

송광사에서 입재할 때 나름은 준비했다고 하지만 ‘아홉재가 있는 423km의 험한 여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인원이 함께 회향 할 수 있을까’ ‘이 길이 불교종흥과 국난극복에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첫발을 내딛었다.

첫날은 걷는데, 먹는데, 텐트 속에 물건을 정리하고 자는데 정신없이 지냈고, 다음날부터는 행선중 기도와 주력, 정근도 열심히 했다. 나름은 열심히 살아왔다 자부했지만 너무나 부족한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는 참회가 걷는 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일어났다.

걸으면서 힘들 때는 앞서 걷는 회주큰스님과 칠십이 넘은 노구임에도 흐트러짐 없이 걷는 동명 스님을 보면서 힘을 냈다. 회주스님은 그 동안 수행자로서 종단의 지도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였고 지금도 한국불교의 든든한 기둥임에도 이런 어렵고 힘든 고행(苦行)과 난행(難行)을 하지 않아도 될 분이었다. 그럼에도 이런 결사를 진행하면서 후학과 종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도 여러 번 생각해 봤다.

상념 끝에 불현 듯 젊은 시절 너무 간절하여 처음 절을 찾았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종교가 없어 절

이주면 사랑나눔 캠페인
한달 만원 후원은 마음입니다.
후원 상담 ☎ 070.4707.1080

최신뉴스

더보기 >



해인사승가대학 총동 “벽암각성 스님과 국문회 21대 회장에 수 일암·소장 문화재 가

서능동 주민자치위원회, 용인시처인도인복...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
조계종-LH,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업무협약
'사회학으로 고찰하는 싱가포르 불교의 발전 양...
원법사장학회 “동국대 학생들의 꿈을 응원함...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동안거 결제 법어
태고종, '종단 통일외의레집' 발간 추진
종관학당, 용수보살 '회쟁론' 겨울캠프 개최

연재

< >

세심청심

계절이 주는 가르침



나의 발심수행

다라니 기도 김윤성(청안, 5...



최명숙의 일상의 발견

20. 국내 최대 아미타대불과...



무진등

“불교 항일운동사 재정립, 한...



이제열의 소리를 관하다

40. 이근의 번뇌



연이 되었다. 내가 그랬듯이 천리순례가 혹여 불교를 믿거나,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정표가 되고, 방향하는 이들에게 등대가 되어 올바른 신앙과 참다운 삶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여법하게 걷고, 걸으면서 이 난행이 사부대중에게 희망의 빛으로 밝혀지길 서원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사대중 일부는 발에 물집이 생겼고 발목이 아프고, 무릎에 테이핑을 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더러는 발톱이 빠지는 상태가 되어 걷는 것을 중단해야 됴도 약을 먹으면서 행선하는 모습을 보며 결사의 고귀함을 다시금 생각했다. 결사가 아니었으면 중도에 포기했을 텐데 결사정신의 힘이 모든 고난을 극복시키지 않았나 싶다.

송광사와 사성암을 지나 화엄사에 이르니 변화된 사찰의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봤고, 해인사 소리길을 걸으며 천상과 극락의 모습을 상상했고 팔만대장경을 보면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국난극복’을 바라는 사부대중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도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다.

회향을 위해 통도사 산문을 거쳐 무풍한송길에 들어설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순례기간 중 열렬히 환영해주고 응원해 주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이 고행과 난행의 결사도 누군가의 지도력이나 도움 없이는 불가능을 절실히 알았고, 적멸보궁 부처님을 향해 한발 한발 걸을 때마다 지난시간의 고통은 사라지고 표현할 수 없는 환희심이 샘물처럼 솟아났다. 통도사에서 출가하여 수없이 다닌 길이지만 그때의 그 길이 아닌 이순간만은 ‘해탈의 길’인 듯 느껴졌다.

수많은 사부대중의 환영 속에 맨발로 사리탑을 걸으니 벽차오르는 감격에 또 다시 눈물이 났다. ‘내 생애 이처럼 아름답고 감격스런 시간이 다시 있었을까.’ 함께 동행한 결사대중과 지원팀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사부대중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결사를 만들어 주신 회주 자승 스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 한없는 존경심이 생겼다.

끝으로 평생에 남을 회향식을 만들어 주신 방장스님과 주지스님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중대중에 구배의 예를 담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한다.

[1607호 / 2021년 11월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많이 본 뉴스

- 01 금정총림 범어사 수좌 인각 대종사 원적
- 02 [특별기고]선서화전에서 확인된 한국 불교의 희망
- 03 형제자매 상속권리 폐지...‘스님 유언장’ 효력 커질 듯
- 04 제2회 생명나눔 대상에 배우 수지
- 05 청년·학부모·다문화와 호흡하는 광주 포교거점 도량 선언
- 06 동국대, 전국 대학평가 9위...사상 첫 톱10 진입
- 07 창원불교연, 코로나 극복 발원 ‘시민 힐링 봉축음악회’
- 08 조계종 중앙종회, 종회 유회 책임 총무원에 전가 논란
- 09 “교육아사리, 시대변화 따른 활동변화 모색해야”
- 10 정청래 망발 사과 촉구 현수막 전국 사찰에 내걸린다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0개의 댓글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법인명 : (주)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